

곰사춤과 방아타령

김여울 지음

가톨릭출판사 / A5 / 190면 / 2200원

의학박사 아들을 따라 미국땅에서 살고 있는 곰방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모두 꼬부랑 말만 쓰고 남의 나라사람들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덧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한 나머지 병석에 눕게 된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고향마을 사람들과 추었던 신바람나는 곰사춤과 방아타령을 보고 듣는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곰사춤과 방아타령」, 「얼룩소와 경운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 등 소박한 주제의 창작동화 15편이 실려 있다.

얼레꿀레

신갑선 지음

남광 / A5신 / 162면 / 2000원

요즘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성교육 동화. 20여년간 교육일선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저자의 경험이 굴절없이 드러나 있어 흥미롭다.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생긴 담임선생님을 좋아하는 예화가 느끼는 첫사랑의 감정,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짝이 되어 같이 앉도록 한 날 학급에서 일어난 소동, 여름캠프에 가서 성숙해진 서로의 몸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마네킹을 이용한 인체공부 등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재미있게 엮여져 있다.

성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인 국민학교 5, 6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책이다.

이야기 한국사

문일평 지음

범우사 / A5 / 212면 / 2500원

역사학자로서 국사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던 문일평씨(1888-1939)가 1947년 우리나라가 독립된 후 기쁜 마음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쓴 「소년역사독본」을 오늘날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엮었다.

청년시절 아끼던 말의 목을 베어 자신의 결심을 다졌던 김유신장군 이야기에서부터 화랑도로서 젊은 나이에 의롭게 죽은 사다함과 관장, 왕산악·우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사람인 박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빛낸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범우피닉스문고」 제15권.

날말 맞추기 퀴즈

홍구암 지음

대일출판사 / A5신 / 252면 / 2500원

날말 맞추기 퀴즈는 여가 틈틈이 누구나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유익한 지식놀이이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버스 또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재미도 자못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은 그동안 중앙일보에 연재되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들로, 모두 124편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국민학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풀 수 있도록 어렵고 쉬운 단어들 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온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풀어나가는 동안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어리동절 선생님

박명희 외 지음

지경사 / A5신 / 248면 / 2500원

어리동절 선생님은 학생들의 속을 그렇게 썩일 수가 없다. 학교에는 교칙이라는 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수업 시작종이 울린 후 10분 뒤에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기 일쑤다. 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싫어해서 아예 님생선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항상 어리동절하게 만드는 선생님을 내쫓기 위해 반 아이들은 데모를 시작하지만, 무엇이든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막기만하는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다는 열변에 아이들은 박수로 환영한다.

「어리동절 선생님」(오인숙) 외에 「은빛종이학」(박명희) 「유괴범은 누구였을까?」(송재찬) 「비 오는 날」(이슬기) 등 동화작가 4인의 작품 33편을 수록했다.

우리들의 친구 티소

모르스 드뤼옹 지음 / 김창활 옮김

친우 / A5신 / 234면 / 2800원

전쟁무기를 만드는 세계적인 공장을 가진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 소년 티소.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며 병든 자의 편이고, 전쟁을 싫어하는 자의 편이다. 티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며 그때마다 세상은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하는 일을 티소는 해내는 것이다. 그의 손에 의해 가난한 판자촌이 하루아침에 부유한 마을이 되고, 감옥이 천국보다 화려한 꽃 속에 묻히게 되며, 전쟁무기가 쓸모없게 되고 만다. 공쿠르 수상작가인 드뤼옹의 장편동화로, 독일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사도 바울로

배희길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176면 / 1800원

사도 바울로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닌 유대교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믿는 유대교만이 정통한 진리라고 확신했던 사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들을 이단자로 여겨 모조리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 그후 사울은 바울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순교하기까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열렬한 기독교도로 전환하게 되기까지의 갖가지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만화로 엮은 책.

탈무드 이야기 지혜학교

이규경 지음

지구마을 / A5신 / 168면 / 2500원

유대인들의 지혜가 집약돼 있는 탈무드에는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재치문답같은 이야기도 있으며 위인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는 한결같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슬그머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다.

이책은 탈무드를 이야기체로 풀어 내려가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요술사과' '어부지리' '기막힌 처방' 등 40여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짙막한 글과 우화적인 그림으로 그 정수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마음(1·2)

이영호 지음

예림당 / A5신 / 각206면 / 각2000원

위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정신과, 전설 및 민담 등에 담긴 옛 어른들의 현명함을 두루 찾아 엮은 이야기책.

적십자를 만들어 전쟁부상병들을 발벗고 나서 도왔던 앙리 뒤낭의 신념에 찬 삶,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비롯해 오성 이항복과 감나무 민담 등 동서고금의 이야기들이 폭넓게 수록돼 있다.

사랑하는 마음·용기있는 마음·슬기로운 마음 14가지의 주제에 따라 50편의 글을 1, 2권으로 나누어 실었다.

여우색시

손춘익 지음

현암사 / A5신 / 206면 / 2400원

전국 곳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갖가지 민담들을 모아 재미있게 꾸민 책으로, 「우리나라 옛날이야기 모음」 여덟번째 권이다.

새색시로 둔갑한 백년 묵은 여우, 양반흉내를 내다가 돌들이 나 쫓겨난 상놈, 달을 산 바보 원님, 도깨비가 된 현 빗자루 등 우리네 특유의 구수한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옛 이야기 54편이 담겨 있다. 때로는 폭소를 터뜨리게 하고 때로는 빙그레 웃도록 만드는 정감어린 이야기들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상들의 취취와 삶의 지혜를 느껴볼 수 있다.

나무의 꿈

이규경 지음

예림당 / A5변형 / 20면 / 2000원

못난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두둥실 떠 가는 구름이 가끔 머리 위로 지나갈 뿐 아무도 이 나무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나무는 작은 새 한마리라도 날아와 주기를 애태게 기다렸습니다. ... [중략] ... 많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에도 빨간 머리의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에게 날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래 오래 나와 함께 있어 줘.” 그런데 그 새는 콧, 콧, 콧... 나무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상한 꿈

이동렬 지음

바른사 / A5신 / 184면 / 2500원

국민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교육 동화.

주인공 남매인 정아와 재형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때 그때 나타내는 성적인 특징이나 신체변화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해 내려가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올바르게 풀어줌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자칫 비뚤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는 동화이다.



괴짜양반

김원석 엮음

대교문화 / A5신 / 192면 / 2200원

옛날 충정도에 양반 한 사람이 살았는데 마을사람들은 그를 괴짜 양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괴짜 양반은 속리산 구경을 하려고 피나리 붓집을 짊어지고 집을 떠났는데, 여행길에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낮모르는 방앗간 집에서 하루밤을 묵고 난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인 아주머니에게 공연히 큰소리를 쳐 대나무 한짐과 사모관대를 얻어가다가 하면, 남의 집 혼인잔치에 사모관대를 입고 나타나 신부가족을 곤란케 해놓고서 오히려 돈과 물건을 얻어 간다. 괴짜이기는 하지만 재치와 슬기가 넘치는 양반이야기 「괴짜 양반」을 비롯해 옛사람들의 이야기 30편을 모아 수록했다.

노마의 발견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지음

해냄출판사 / A5신 / 254면 / 2700원

「노마의 발견」 제1권 기초입문편과 제2권 알고 행동하기편에 이어서 발간된 제3권 역경극복편. 노마와 나리 등 여러 어린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에 부딪쳐보고, 또 남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보며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의 기쁨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시련에 빠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늘 겪는 일이다. 이책에서는 집을 떠나 여행을 가서 길을 잃었을 때의 막막함, 농촌사람과 도시사람이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과 부조리들, 장애자들의 불리함과 어려움 등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고난들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고 있다.

우리 선생님 괴짜 선생님

발터 켐포브스키 지음 / 전영애 옮김

文學世界社 / A5변형 / 118면 / 2300원

교과서의 이야기들을 싫어하고, 소풍을 가서는 그곳이 낮잠을 주무시는가 하면, 귀여워하는 여자아이가 깨워야 겨우 화를 안 내고 일어나는 괴짜선생님의 이야기.

1979년 독일에서 「우리 뵈켈만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어 학부모들의 좋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저자 켐포브스키 역시 1980년까지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대학강단에 서고 있는 인물이다.

온갖 신식교육방법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다만 그들의 자발성을 눈여겨보며 북돋아주려고 노력하는 푸근한 구식 선생님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진 작품이다.

무지개마을

황베드로 수녀 지음

第三企劃 / A5신 / 162면 / 3000원

「조약돌 마을」 「동그란 마을」 「꽃피는 마을」 등 순박한 고향마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동시들을 꾸준히 발표한 황베드로 수녀의 일곱번째 동시집.

약70여편의 동시들이 수록돼 있는데, 「초생달」 「꼬리별」 「용달샘」 「소꿉놀이」 「호박」 「구운 달걀」 「풀꽃」 등 시골의 정겨운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떡잎 두 쪽 / 속속 올라 올 때 / 서로 얼굴 비슷해도 / 나는 다 알아. / 백합, 나리, / 백일홍, 봉선화, 과꽃. / 어렸을 때 / 꽃밭에서 사귀 내 친구들. / 날이 새면 뛰어가 만나던 / 반가운 얼굴들 / 떡잎 두 쪽부터 / 나는 다 알아.” (새싹) 등 정겹고 소박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